

## 現代의 思惟와 人間 理念

### 人間 解釋의 現實形態(4)

金基錫

우리들은 지금까지 西洋文化를 支配하여 내려온 人間理念으로서 아래와 가튼 두 개의 人間類型을 생각한다. 하나는 希臘哲學 및 獨逸의 理性主義에 잇서서 代表 되는 理性的 人間의 觀念, 하나는 近代의 機械主義的 物質文明을 建設한 制作的 人間의 類型. 이밖에도 『막스·웰러-』가 그의 論文 『人間과 歷史』속에서 말한 다른 세 개의 類型 宗教的 人間, 데오니소스의 人間, 無神論的 人間 가튼 것을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人間의 自己解釋으로서 가장 세차게 人間思惟의 밑바닥을 흐르는 것은 아무래도 이 理性을 사모하는 『호모·사피엔스』, 行動을 내어세우는 『호모·파베르』의 두 類型이라고 보여진다.

그런데 첫째 이 理性的 人間이란 무엇일까. 우리들은 사람에게 理性이나 思惟가 있음을 안다. 사람은 이 理性이나 思惟에 잇서서 자기를 단순한 自然으로부터 구별한다. 사람은 위 낙 理性的 存在의 意味를 가진다. 이 人間의 理性은 究意에 잇서서 神의 理性에 連續된다. 이러케 하여 이 『호모·사피엔스』의 人間理念은 어디까지던지 人間의 根本徵表로서 理性을 내어세우고 이 理性이 가져오는 『學』 또는 觀想을 가르쳐 人間生活의 最高標識이라고 한다. 理性的 人間에 反對하여 人間의 實存을 어디까지던지 行動이나 生産에 잇서서 規定하려고 하는 다른 한 개의 人間觀이 있다. 아페서 말한 制作的 人間의 觀念 그것이다.

이 制作的 人間이란 무엇일까. 우리들은 사람이 그 자신 한 개의 自然임을 안다. 사람이 아무리 自然을 버서나려고 힘쓴다고 해도 依然히 自然의 아들로서의 意味를 가지는 한에서 人間은 어디까지던지 自然의 原理를 自己의 原理로 하지 안허서는 안된다. 그런데 自然의 世界는 본대 運動의 世界의 意味를 가진다. 사람은 생각하는 理性을 가지기 전에 먼저 움죽이는 行動을 지녀야한다. 사람은 그 자신 한 개의 進化된 生物에 지나지 안는다. 오직 단순한 生物에 대한 구별은 저편이 機械的 運動, 이편이 意識的 行動을 보이는데

있다. 그러나 이 구별도 실상은機械, 말, 知性 가튼 『연장』을 가지고 못가지고 또 그것을 使用하고 못하는 조그만 差異에서 생긴다. 이러케 하여 이 『호모·파베르』의 人間 解釋은 어디까지던지 人間の 神에의 連續이 아니라 動物의 人間에의 連續을 主張하여 奔放한 情念의 解放, 自然에 대한 不斷한 征服에 잇서서 動物的 衝動의 體系로서의 人間の 生存이 構成된다고 한다.

『호모·파베르』는 人間을 自然으로부터의 人間으로 가르친다. 이리하여 하나는 人間임을 넘어 神의 世界에 드러가기를 希求하고 하나는 人間이면서 그대로 自然의 體系에 도라 가기를 主張한다.

그러나 現實的 人間은 어디까지던지 神과 自然의 사이에 자기의 定位를 가지 는것이 아닐까. 人間은 한 개 理性的 存在가된다. 그러나 人間の 理性은 有限한 理性으로서의 意味를 가진다. 여기에서 人間の 神에 대한 謙虛가 온다. 人間은 한 개 自然的 存在가 된다. 그러나 人間은 自然속에서 자기를 歷史的 存在로 主張한다. 여기에서 人間の 自然에 대한 矜持와 優越이 마련된다. 人間實存의 眞實한 理念은 『호모·사피엔스』 『호모, 파베르』를 그 속에 止揚시키는 한 개 노픈 秩序로서의 意味를 가진다 『호모·사피엔스』는 主體로서의 人間을 보면서 그 環境을 보지 못했고, 『호모·파베르』는 客體로서의 環境을 보면서 그 主體를 보지 못했다. 하나는 말하자면 見人不見境의 立場, 하나는 거기에 대한 見境不見人の 立場이된다. 우리들은 이 두 구차한 立場에서 버서나 見人卽見境, 見境卽見人の 眞實한 立場에 나아가기를 힘써야한다.

人間을 主體의 世界 속에서 차를 때 거기에는 理性的 體系가 나타나고 人間을 客體의 環境 속에서 일혀 버릴때 거기에는 運動의 原野가 버러진다 그러나 人間은 본대 理性的=行動的 또는 行動的=理性的 存在가 아닐까. 理性은언제나 行動的 理性的 意味를 가지고 行動은 언제나 理性的 行動의 意味를 가진다. 行動과 헤여진 理性이 잇고, 理性을 빼여 노흔 行動이 잇는가. 이 理性이나 行動은 워낙 어떤 한 개의 地盤 우에서 자기를 理性 또는 行動으로 主張하기에 이른다. 이제 이 한 개의 地盤을 理性이나 行動에대하여 體驗이라고 부르기로 하면 人間은 진실로 이 體驗的 存在인데서 그 자신의 根源的 規定에 만난다. 우리들이 흔히 歷史的 存在이니 社會的 存在이니 라고 할 때 이 歷史나 社會는 본대 그 勝義에 잇서서 理性的=行動的 世界的 意味를 가져야 하고 나아가 理性 및 行動의 地盤으로서의 體驗的 世界的 意味를 가져야한다.